



신계사 칠성각에 박감옹 불묘의 '칠성도'를 복원하고 회기를 쓰는 제정 스님(신계사 도감)과 월곡 박봉순 선생.

민족의 미래 '하나'로 묶는 위대한 불사

2004년부터 본격화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마무리 됐다.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공동으로 추진한 신계사 복원 불사는 남북 분단의 반세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문화 사업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남과 북의 불교도가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천년고찰을 복원했기 때문이다. 신계사의 복원은 이념으로 갈라선 단일 민족을 불심으로 결합시킨 쾌거다. 지난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 불사는 특별한 제동 없이 회향에 이르렀다.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슴 푸근한 미담도 많았고 눈물겨운 인연도 많았다. 남한의 장애우들이 비를 맞으며 신계사를 참배했고 팔순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적지 않은 불사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북한도 단청 등 기술자들을 파견해 전통을 있고 있는 '숨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도량 장엄에 마음을 모았다. 그렇게 모아진 마음이 대웅보전 앞 삼층석탑을 다시 세웠고 한국전쟁 때 전소된 대웅보전을 비롯해 만세루 극락전 산신각 나한전 조사전 종각 칠성각 요사채 등 신계사의 도량이 새로운 면모로 금강산을 장엄했다.

10월 13일 복원불사 낙성식을 전후해 12~14일 사흘간 계속된 회향법회는 우리 민족이 금강불심으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름 아니었다. 역사적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회향을 맞아 이 불사에 동참한 불모 박감옹씨의 소감을 통해 불사의 의미를 짚어 본다. 또 불사의 주요 장면들을 사진으로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신계사 복원불사 회향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담은 불사의 현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더 빛났다. 이미 이 불사에 동참하고 이 도량을 다녀간 남한의 불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염원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다. 그래서 신계사와 신계사 복원불사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따로 없는 우주적 불사의 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고 온 몸이 뜨거워졌다.

신계사는 이미 말끔했다. 계획했던 모든 전각들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갈하게 복원됐고 날아갈 듯 산뜻하게 장엄된 단청이 가을을 맞는 금강산과 어울려 불국토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찰 단청을 대표하는 금단청(鎭丹靑)의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들이 남과 북의 단청장들에 의해 저토록 아름답게 구현되었으니 금강산에 상주하는 법

기보살의 넉넉한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불모(佛母). 남들로부터 이 이름을 듣는 것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30년 가까운 시간을 걸어 온 이 길에서 나는 적지 않은 환희로움을 경험했지만 신계사 칠성각에 칠성탱화를 봉안하는 순간만큼은 어느 순간보다 가슴이 벅찼다. 어디 나 뿌이였겠는가? 대웅보전에 '영산회상도'를 모신 석정 원로스님이나 나한전 극락전 지장전 등 전각마다 탱화나 담집 등을 조각, 봉안한 불모들도 불보살상을 조성해 다 기쁘고 뜨거웠을 것이다.

나는 신계사에서 다시 태어났다. 신계사가 5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듯이. 이 불사에 동참한 소중한 인연이 나를 더 진중히 불모로 거듭나게 했다. 이 불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 지난 4년간 신계사를 다녀간 사람과 앞으로 신계사를 찾아 올 사람

들까지 새로 태어날 것이다.

분단된 땅, 금단의 선을 넘어 온 남한 불자들의 원력으로 피폐한 도량을 조사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전각을 세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전각마다 단청을 장엄하고 불화를 모시고 보존불과 보살상을 봉안하는 일인들 어디 쉬운 일이었는가?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 불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로 묶어 주는 귀하고 귀한 역사다. 그 현장은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 빛과 색의 잔치로 떠들썩할 것이니,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고 무엇일까?



박감옹(불광대학교미술원장)

2007년 9월 19일 외금강 온정각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새롭게 느꼈다. '이렇게 쉽게 북한 땅에 올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금강산에 온 이유가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이었다. 멀리 우뚝 선 금강산의 풍경이 가슴을 뜨겁게 했고 푸른 동해를 머금은 바람이 온 몸을 쓰다듬으며 반

기는 듯 했다. 다음날 신계사로 가는 길은 참으로 꿈길 같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경치는 경이롭고 신비하고 가슴 설레는 것뿐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계사는 그런 도량이었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 사진으로 보는 신계사(2004~2007)



신계사 복원공사 착공식(2004년 7월)



남북불교도합동법회(2005년 7월)



세계시민대회참가 시인들 참배(2005년 8월)



장애인들의 참배(2006년 4월)



단청공사(2006년 7월)



남북공동낙성식(2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종본찰 봉선사 제3대 주지 진산식



모시는 글

대한불교조계종 교종본찰 봉선사에서서는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13대 주지 인목스님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봉선사는 교종본찰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아울러 교육·복지·포교를 통한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13대 주지 진산식에 법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종본찰 봉선사 제13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정수 합장

■ 일시_ 불기2551(2007)년 10월 20일(토) 오전 11시

■ 장소_ 봉선사 큰법당

1부 주지 진산식(오전 11시)

2부 축하공연(오후 1시 30분)

• 화환은 사절합니다. 대신 백미나 성금으로 보시하시면 남양주 문화복지과에 전달하여 지역 이웃들기에 쓰겠습니다.
• 여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교종본찰 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 (우)473-864 ■전화 : (031)527-1951~3(사무실), (031)527-1956(종무소) ■전송 : (031)527-1958